

청소년의 성별로 본 사회화와 생활환경*

Socialization and Environmental Factors of Adolescents According to the Gender*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복지학과

교수 정영숙

부교수 김영희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박경옥

조교수 이희숙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조교수 채정현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

조교수 이종섭

Dep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

Professor : Chong, Young Sook

Associate Professor : Kim, Yeong Hee

Dept. of Home Management, Chungbuk National Univ.

Professor : Park, Kyoung Ok

Assistant Professor : Lee, Hee Sook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 of Education

Assistant Professor : Che, Jung Hyun

College of Medicine, Dept. of Psychiatry, Kunkuk Univ.

Assistant Professor : Lee, Chong Sub

◀ 목 차 ▶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결과 및 해석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Abstract >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factors on adolescent's socialization were examined according to the gender. Data were drawn from 1,412 adolescents. A hypothesized model was tested for male and female students separately by the links among housing, family conflicts,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family stress, peer

*본 연구는 1997년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문·사회과학분야 중점영역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relations, mass media, school atmosphere, consumption, consumer socialization, and adolescent's socialization.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in the predictability of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factors on internal and external socialization. For male students, the internal socialization was directly related to mass media, consumer socialization, peer relations, family stress, mother-adolescent relations, and school atmosphere. The external socialization was directly related to mass media, school atmosphere, consumer socialization, father-adolescent relations, housing, and mother-adolescent relations. For female students, the internal socialization was directly related to mass media, peer relations, father-adolescent relations, and consumer socialization. The external socialization was directly related to mass media, followed by consumer socialization, mother-adolescent relations, school atmosphere, housing, and peer relations.

The findings are consistent with a growing body of literature showing that the environmental factors are related to male & female adolescent's socialization.

I.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청소년기는 아동기와는 달리 자기존재와 능력을 탐구하고 새로운 가치와 삶의 방식을 탐색하는 발달과정을 겪으면서 또래집단, 학교, 대중매체, 소비환경 등과 같이 보다 확장되고 복합적인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다(Gecas & Seff, 1990). 더욱이 현대사회가 산업화 도시화됨에 따라 요즘 청소년들은 복잡 다양하고 변화의 폭이 넓은 사회문화적 환경에 적응하도록 요구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의 부정적인 결과로 청소년 비행, 학교폭력, 일탈행동, 자살행동과 같은 외면적 부적응 행동이나 공격성, 우울증, 불안증과 같은 내면적 부적응 행동이 점점 심각해져 주요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Eccles, Midgley, Wigfield(1993) 등이 문헌고찰을 통해 밝혀낸 바와 같이 청소년 발달은 개인발달 수준과 사회문화적 환경 수준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지만 청소년이 접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청소년들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켰을 때 청소년들은 개인발달을 촉진시켜 자신들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고 공동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회화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는 끊임없이 청소년이 접하고 있는 사회 문화적 생활환경이 중요한 사회화 기제가 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 문화적 생활환경과 청소년의 사회화에 관한 연

구는 대부분 가족, 친구, 학교 환경에 편중되어 있어 현대사회에서 점점 청소년의 적응이나 사회화에 관련이 높아지는 다른 생활환경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이에 따라 정영숙, 김영희, 박경옥, 이희숙, 채정현, 이종섭(1999)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주거, 가족, 친구, 학교, 대중매체, 소비와 같은 생활환경이 어떻게 청소년의 내면사회화와 외면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혀내었다. 연구결과 생활환경은 모두 청소년의 사회화에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장 영향력이 높은 환경은 대중매체 환경이며, 생활환경은 청소년의 외면사회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내면사회화를 더 많이 설명해 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생활환경은 외면적으로 표출된 행동보다 언제든 문제행동을 일으킬 상황만 일어난다면 외면적으로 돌출할 수 있는 내면사회화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 주고 있어, 생활환경이 청소년 문제를 예방적 차원으로 접근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이 결과는 청소년이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격성, 우울증, 불안, 반항심, 충동성과 같은 심리적 특성이 사회환경(가족, 학교, 친구, 사회)과 상호작용하여 문제행동을 보인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회화는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체계 안에서 적절히 기능하거나 적응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회화 과정은 남녀에 따

라 다르게 학습되기 때문에 사회화 문제를 성에 따라 더욱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Sharp과 Cowie(1998)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어려움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내적 강인함(inner strength)이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 환경에 접하는 오늘날의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됨을 역설하면서 내적 강인함에 대한 남녀 차이를 설명하였다. 즉, 내적 강인함이 높은 여자청소년은 과잉보호는 아니지만 애정적 지원이 충분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경우였으며, 탄력적이고 내적 강인함이 높은 남자청소년은 부모와 애착이 형성되어 있으면서도 지켜야 할 규칙이나 부모의 감독이 엄격한 가정에서 자란 경우였다. 또한 탄력적인 여자청소년은 다른 사회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난 반면 탄력적인 남자청소년은 사회환경에 대한 통제력이나 조절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구는 여자보다 남자청소년이 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행동을 하며, 불순한 행동을 보이며, 비행을 일으키는 등 더 많은 외면적 문제행동을 보여주고, 여자청소년이 남자보다 우울증과 불안과 같은 내면적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Broderick, 1998; Peterson, Sarigiani, & Kennedy, 1991). 이에 대해 Nolen-Hoeksema와 Girus(1994)의 표면적인 조사연구에서는 남자청소년은 외면사회화에 문제가 있고, 여자청소년은 내면사회화에 문제가 있는 것같이 보이지만 실제 일탈이나 비행문제를 일으킨 청소년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외면적 문제행동 밑에 내면적 문제행동이 내재되어 있어 남녀에 따라 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세운 다변인 모델을 통하여 생활환경 요인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청소년의 내면과 외면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성별에 따라 비교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II. 이론적 배경

다변인 모델에서 제시된 인과관계 경로는 정영숙

등(1999)의 연구에서 그 정당성이 입증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생활환경이 청소년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을 성차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1. 주거환경과 청소년 성별에 따른 사회화

가정생활이 영위되는 주택을 포함한 주거환경은 인간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Heimstra & McFaling, 1978)으로 청소년의 심리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며, 아울러 청소년들의 내면·외면사회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의 성에 따른 주거환경 태도 연구를 보면, 주거공간의 사용과 태도는 성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고(Downer, 1977 유성희 1982에서 재인용) 개인공간의 프라버시 태도는 남녀에 관계없이 긍정적으로 나타나(유성희, 1982), 성에 관계없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주거과밀은 청소년의 사회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거과밀의 인식은 성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배연옥, 1990).

Dower와 Johnston(1979)은 혼자 사용할 수 있는 개인공간이 없을 때 거실사용이 더 많아짐을 발견하였는데 주거내 거실의 수와 관련하여 거실이 한 개인 경우에는 개인공간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지만 거실이 두 개인 경우에는 개인공간을 다른 가족 구성원과 같이 사용해도 만족함을 발견하였다. 성에 따른 주거환경의 영향을 보면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제2의 거실공간이 없으면 집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더 많아서 남학생의 외면 사회화에 주거환경의 영향이 큼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또한 주거만족도는 청소년의 내면사회화와 외면사회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정영숙 등, 1999) 성에 따라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 있는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2. 가족환경과 청소년 성별에 따른 사회화

가족환경은 청소년의 사회화과정에 주요 기제가 되어 청소년의 적응이나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가족간의 갈등, 부모와 청소년의 관계, 가족 스트

레스는 다른 어떤 가족환경 요인보다 청소년의 친구관계나 학교생활의 적응에 영향을 미쳐 청소년의 사회화과정에 기제가 됨이 밝혀져 있다(Brody, Arias, & Fincham, 1996). 선행연구에서 가족환경은 남녀 모두 다른 생활환경이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남학생에게 더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Harold & Conger, 1997). 가족간에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가족환경의 경우 남학생은 반사회적 행동이나 일탈, 비행 등을 일으키는 비율이 여학생보다 높았고, 여학생은 우울증이나 불안 수준이 높았다.

가족간의 갈등 중 특히 부모간의 갈등은 청소년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되어 자녀의 적응과 사회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Brody, Arias, & Fincham, 1996) 이에 대한 영향력은 남학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있다. 자녀들은 부부갈등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분노가 어떻게 표현되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갈등에 관여되어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모방하기 때문에 부부갈등 시 서로의 성을 모방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남학생의 경우 분노를 외적으로 표출할 기회가 많고 공격성과 충동성이 더 허용적이기 때문에 가족간의 갈등은 남학생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갖는다. 또한 가족간의 갈등은 자녀의 사회적 기술이나 친구관계에도 영향을 준다(Kline, Johnson, & Tschann, 1991). 더욱이 부부관계는 자녀의 학교환경에도 영향을 미쳐 갈등이 높은 가정의 청소년은 학교성적이나 교사와의 관계에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Long, Slater, Forehand, & Fauber, 1988).

부모-자녀간의 갈등은 청소년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주거나, 내면화된 특성의 문제를 가져오게 하거나, 학교생활의 적응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비행행동을 하는 친구의 영향력을 증진시키거나, 비행행동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McCord, 1990; Patterson, Capaldi, & Bank, 1989). 반면 부모와 청소년 자녀가 긍정적이고 애정적이며 좋은 관계를 맺으면 사회적, 인종적, 문화적 배경이 달라도 자녀의 사회화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Erel & Burman, 1995). 실제 부모들은 여아보다 남

아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으나, 부모-자녀관계의 영향력은 성차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실제 영향력은 남녀 모두에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Erel & Burman, 1995). 최근 연구는 어떻게 가족환경 요인이 청소년의 사회화와 관련이 되어 있는지에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첫째, 부모-자녀간에 애착이 형성되지 않으면 규범과 가치를 자녀들이 받아들이는데 문제를 보인다. 특히 남아들은 아버지와 애착이 형성되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현존하는 부모상'을 갖지 못해 반사회적 행동을 억제하는 통제기제가 부족하게 되어 친구나 대중매체 같은 외적환경에 더 의존하게 된다. 둘째, 부모들 자신이 자녀를 훈육하는데 문제가 있어 아이들을 충동적인 반사회적 행동으로 이끈다. 셋째, 사회화과정을 방해시키는 가족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녀에게 인적자원을 통한 원조체계를 제공하지 못한다(Gottfredson & Hirshi, 1990; Sampson & Laub, 1994).

부모형제의 죽음이나 질병, 부모의 별거나 이혼, 부모의 실직, 재혼, 가정경제의 어려움 등과 같은 가족스트레스는 청소년의 외면적, 내면적 사회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내고 있다(Rutter, 1987).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가족간의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청소년의 내면행동은 점점 외면행동과 복합되어 나타남을 보여 주고 있는데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의 경우 일관성 있게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3. 친구환경과 청소년 성별에 따른 사회화

청소년기의 친구환경은 중요한 지지환경과 사회화를 학습할 환경을 제공해 준다. 그러나 일탈이나 비행의 문제를 보인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일반 청소년보다 친구가 더 많고, 친구와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최근 연구자들은 친구와의 관계도 부모와의 관계와 같이 관계의 질적인 측면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Hartup, 1996). 즉, 청소년들은 공통적인 관심과 활동을 가질 때 친구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어떤 특성의 친구를 갖

고 있는가가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친밀한 친구관계를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청소년과 친구관계는 단순히 친밀도를 가진 친구의 유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특히 성차에 따라 친구관계의 특성이 어떤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선행연구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는 친밀한 친구관계가 없고, 친구관계 형성에 곤란을 느끼거나, 친구집단에 수용되지 않는 청소년은 정서적인 불안성과 부정적인 성격형성, 그리고 문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Oldenburg & Kerns, 1997). Newcomb과 Bagwell (1995)은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고, 웃는 등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고, 남자들은 친구와 같이 활동을 더 많이 하지만 상호 공통적인 관심과 활동을 중심으로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친구환경이 다른 환경이나 사회화에 성차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있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 논문은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

4. 대중매체 환경과 청소년 성별에 따른 사회화

대중매체 환경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대중매체의 종류, 내용, 시간에 대한 영향력, 이용하는 상황, 대중매체로부터 받는 영향력의 정도 등에 관한 것이다(Amett, 1994; Larson, 1995; Rosengren & Windahl, 1989; Strasburger, 1995).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시간에 따른 영향력은 청소년들이 '개인적 자아(private self)' 세계를 위해 대중매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한 쪽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면 학업이나 운동 등 다른 사회화 경험에 필요한 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대중매체에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Amett, 1994).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중매체는 우리나라와 외국 모두 TV로 나타났다(박세권, 1995). TV 시청은 시간을 매우 수동적으로 보내게 되고, 대인과의 접촉이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나친 중시청자의 경우 신체 발달 이외에 사회성 발달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학교 숙제할 시간

을 시청시간으로 보냄에 따라 인지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Page 등(1996)의 연구에 의하면 하루 5시간 이상 TV를 시청하는 중시청자가 남학생은 전체의 15.3%, 여학생은 21.1%를 차지하였고, 중시청자는 남녀 모두에 섭식장애나 우울증과 같은 증세를 보였다.

대중매체의 종류나 내용에 따른 영향력을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들은 매체를 통해 폭력물이나 성행동을 많이 보면 볼수록 공격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되고, TV행동을 더 많이 모방한 공격과 성행동을 하게 되며(Liebert & Spafkin, 1988), 헤비메탈이나 록음악과 같은 공격적인 음악을 듣는 동안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공격성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Amett, Larson, & Offer, 1995). 또한 청소년의 과도한 연예인 우상화는 청소년들에게 신경증과 같은 내면적 문제를 일으키고 학교생활의 적응에 문제를 보여 청소년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최우신, 1999; Raviv et al., 1996). 공격성과 성행동의 모방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예인의 우상화 정도는 남아보다 여아에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학교환경과 청소년 성별에 따른 사회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아져서(김형태, 1996), 학교환경은 청소년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생들과 우정을 나누고, 인정받으며, 소속감을 느끼고, 재미있기를 원한다(Glasser, 1988). 하지만 오늘날의 학교는 학생들의 이러한 욕구를 채워주기 보다는 학생들을 길들이고 훈육하며 사회적으로 통제하고 성인들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주입시켜 학생들이 제 기능을 다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Pinar, 1975). 이와 같은 증거로 여러 연구(김형태, 1989; 문용린, 1992; 1985; Strommen, 1985)에서 청소년의 고민과 문제점으로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학교생활로 나타났다.

성별을 중심으로 한 학교환경에 관한 연구는 주

로 기술적인 연구와 상관관계 연구로 제한된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교환경 또는 학교풍토 지각에 대한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한규옥, 1994)과 그와 반대로 차이가 있어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서 학교환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혜정, 1992). 학교환경과 자아개념의 관계에 관한 연구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환경이 바람직하다고 지각할수록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나타냈다(김정화, 1991). 학교환경이 청소년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 결과(정영숙 등, 1999), 학교환경은 청소년의 내면 사회화와 외면사회화에 영향을 미쳤다.

6. 소비환경과 청소년 성별에 따른 사회화

소비환경은 한 개인이 사회 공동체 내에서 소비생활에 필요한 가치, 태도, 행동을 발달시키는 과정, 즉 소비자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환경을 의미하며, 소비자사회화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청소년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를 위한 소비자사회화의 개념은 소비자가 속한 사회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물질에 대한 가치관과 소비행동을 학습하여 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소비자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환경으로 대중매체, 친구, 가족, 학교가 연구되어져 왔다.

대중매체에 관한 연구로는 소비자사회화에 대한 TV의 영향력에 대한 것으로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하여 TV 광고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윤미경, 1991; 윤영아, 1992) 강한 긍정적 경향을 갖는다는 선행연구(박종오, 1988; Moschis & Churchill, 1978)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TV 광고 혹은 드라마 등의 등장인물이 물질주의성향과 현시소비성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Goldberg & Gorn, 1978; Moschis & Churchill, 1978; Vender & Hohter, 1965)를 고려하여 볼 때, 소비환경요소 중 대중매체는 남자청소년에 비하여 여자청소년의 물질주의 성향 혹은 현시소비성향을 높이는 소비자사회화 요인으로 작용하리라고 생각된다.

부모는 남자청소년에 비하여 여자청소년과 소비

에 관하여 더 자주 이야기하며, 구매시 더 관여하는 경향을 보이며(박종오, 1988; 최숙진, 1983; Moschis, 1987), 특히 어머니와의 소비에 관한 의사소통 역시 남자청소년에 비하여 여자청소년과 더 자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천경희, 1985; 정종원, 1992). 이러한 경향은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소비에 대한 기본적인 이성적인 측면을 배운다고 역설한 초기 사회학자들의 연구결과(Reisman & Rosberough, 1955, 김문희 1996에서 재인용)를 고려하여 볼 때, 소비환경요소 중 부모는 남자청소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여자청소년의 물질주의성향 혹은 현시소비성향 수준을 낮추는 소비자사회화 요인으로 작용하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소비환경 요소 중 친구환경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하여 친구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크며(Campbell, 1964), 친구와 소비에 관하여 더 많이 이야기하며, 친구소비행동을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박종오, 1988; Moschis, 1987)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동료와의 대화 빈도가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소비에 대한 사회적 동기(비이성적 동기)와 물질적 태도가 크다(Moschis & Moore, 1978)는 선행연구와 어린이들은 친구로부터 소비의 표현적 측면을 배운다고 보고한 선행연구(Reisman & Rosberough, 1955, 김문희 1996에서 재인용)를 고려하여 볼 때, 친구환경 요소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물질주의 혹은 현시소비성향 수준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리라고 생각된다.

소비환경 요소 중 학교를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에 비하여 여자청소년, 특히 고등학교 여학생의 경우, 가정 교과목을 통하여 남학생보다 합리적인 소비와 소비와 관련된 지식을 상대적으로 폭넓게 배우는 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 남자청소년에 비하여 여자청소년 집단의 학교 소비환경이 상대적으로 소비자사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된다.

위 선행연구들은 소비환경 요소 중 부모 및 학교환경이 여자청소년 집단의 물질주의 및 현시소비성향 수준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반하여, 대중매체와 친구환경은 그 반대로 작용하리라는 생각을 뒷받침하여 준다. 따라서 선행연구

만을 기초로 소비환경의 영향으로 인한 남녀청소년 집단의 전체적 소비자사회화 수준의 차이를 추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물질주의 성향이 여자청소년에 비하여 남자청소년 집단에서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연구(Churchill & Moschis, 1979)가 있다. 또한 현시소비성향면에서 Churchill과 Moschis(1979)는 남자청소년이 여자에 비하여 더 강한 사회적 소비동기를 갖는다고 보고한 반면, 김문희(1996)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과소비성향이 높다고 보고하여 서로 상반된 연구결과를 보인다.

소비자사회화 요인의 청소년의 내면, 외면 사회화에 대한 영향이 남녀 청소년 집단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에 관한 선행연구는 없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에 비하여 물질주의 성향이 높다는 결과(Churchill & Moschis, 1979)와 한 개인의 지나친 물질주의 성향은 사회 공동체 내에서 자아의 개발, 타인과의 관계, 삶에 영향을 주는 다른 부분에 대한 관심을 방해할 수 있으며 (Csikszentmihalyi & Rochberg-Halton, 1981, Richins 1990에서 재인용), 물질의 소유를 성공의 상징이나 기쁨의 원천으로 여기고 많이 소유할수록 행복하다는 가치신념이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할 수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전귀연, 1998)를 고려하여 볼 때,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의 소비자사회화 변인이 외면 혹은 내면사회화에 좀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Churchill과 Moschis(1979)의 연구결과와 같이 남자청소년의 현시소비성향이 여자청소년보다 높다면, 청소년의 현시소비성향이 그들의 외면 일탈행동과 관련있다는 구정화(1997)의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볼 때, 남자청소년에 비하여 여자청소년 집단에 있어서, 소비자사회화 변인이 외면사회화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근접하는 생활환경은 청소년의 내면과 외면 사회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청소년의 심리적·행동적 적응에 명백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이러한 영향력이 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밝혀주고 있는 연구가 소수 존재하고 있어

생활환경이 청소년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나 성에 따라 생활환경이 어떻게 청소년의 사회화에 영향력을 갖는지를 한 연구 모델 안에서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한 선행연구가 없어 본 연구는 청소년의 성별로 본 사회화와 생활환경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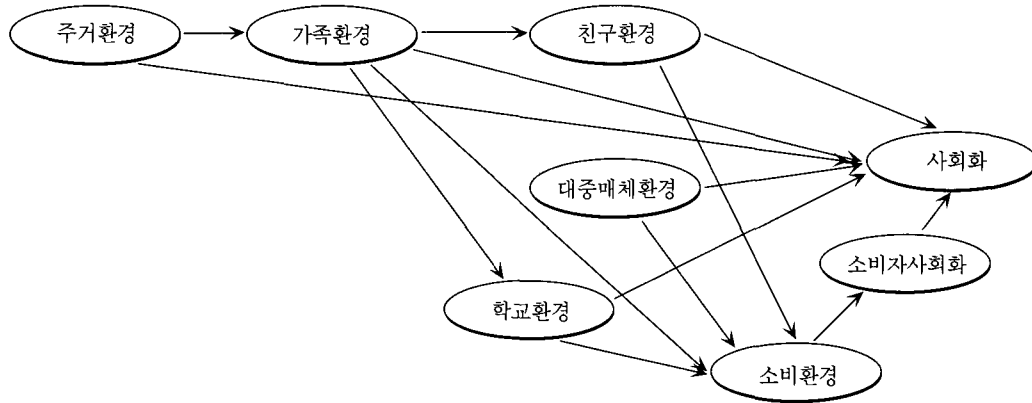
1. 연구범위 및 내용

본 연구에서 생활환경은 일상생활 속에서 청소년에게 경험의 세계를 주어 청소년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 가족환경, 친구환경, 대중매체환경, 학교환경, 소비환경 등으로 하였으며 사회화는 내면과 외면 사회화로 하였다. 내면사회화는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심리적 사회화로서 청소년의 적응상태를 내면에서 조절하는 기제를 말하며, 외면사회화는 외면적이고도 행동적인 사회화로서 밖으로 표출된 청소년의 적응상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그림 1>의 다변인 모델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 모델은 각 변인의 경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설적인 관계를 포함한다. 본 연구는 생활환경 요인의 영향력이 청소년의 사회화에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한 모델 안에서 비교분석하는데 있다. 따라서 <그림 1>의 다변인 모델 검증은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을 독립적으로 하여 남녀에 따라 생활환경이 청소년의 사회화에 어떤 차이를 가지는가를 비교분석한다. 또한 <그림 1>의 다변인 모델은 이론적 배경의 제한점으로 인해 생활환경 요인들간의 관계를 일방적인 관계로만 분석하는 제한점이 있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과 분석

표집은 성과 주거지역을 고려하여 중·고등학교 2학년으로 하였으며, 주거지역의 선택은 조사의 용



<그림 1> 연구모형

이성을 고려하여 대도시인 서울시를 선정하였으며, 중소도시로는 충북 청주시, 농촌으로는 충북 청원군을 선정하였다. 20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이의 결과를 토대로 수정한 설문지를 본조사에 이용하였다. 본조사 기간은 1998년 2월 12일부터 2월 20일까지 총 1,44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자료분석에 최종적으로 이용된 설문지 부수는 1,412부였으며, 자료는 SAS/PC+를 이용하여 다중회귀 경로분석을 하였다.

3. 측정도구

측정도구의 타당도는 공동연구자 6명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과 내용이 부합되는지를 함께 검증하였고, 신뢰도는 모두 Cronbach α 계수를 이용하여 내적일관성을 검증하였으며 값의 범위는 0.81~0.95로 높게 나타났다. 모든 측정도구는 5점 리커트형으로 이루어졌으며, 외면사회화와 가족생활스트레스 변인은 4점 리커트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측정도구에 대한 자세한 서술은 정영숙 등(1999)의 연구에 나타나 있다.

청소년의 사회화는 내면사회화와 외면사회화로 분리하여 내면사회화는 심리적 적응행동으로 외면사회화는 행동적 적응상태로 측정하였다. 청소년의

내면사회화는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불안증, 공격성, 우울증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SCL-90-R(Derogatis et al., 1976)을 수정 보완하여 측정하였다. 청소년의 외면사회화는 Simons, Johnson, & Cogner(1994)가 청소년을 연구하는데 사용하였던 지난 일년간의 비사회적 행동에 대한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평가하였다.

가족환경은 가족갈등, 부모-청소년관계, 가족생활스트레스로 나뉘어 측정되었다. 가족갈등은 Hudson(1982)의 Index of Family Relations(IFR)를 번안 수정하여 청소년이 가족간의 갈등을 어느 정도 지각하는지에 대해 측정하였다. 부모-청소년 관계도 역시 Hudson(1982)의 Child's Attitude Toward Mother(CAM)와 Child's Attitude Toward Father(CAF)를 사용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 정도를 분리하여 측정하였다. 가족스트레스는 MaCubbin과 Patterson(1987)이 청소년이 직면하고 있는 가족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한 A-FILE(Adolescent-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주거환경은 주거 개인공간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만족도와 공동공간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한 조사도구는 유성희(1982)의 개인공간 프라이버시 항목과 Galvin & Brommel(1986)과 윤영선

(1990)의 주거환경 이용과 관련된 문항을 참고로 하여 구성하였다.

친구환경은 친구관계의 질을 측정하는 Sharabany's Intimacy Scale(Sharabany et al., 1981)을 이용하여 친구와의 관계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를 평가하였다.

대중매체환경은 대중매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함으로써 측정하였다. 대중매체환경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기존의 측정도구가 없어 대중매체 환경은 선행연구(Strasburger, 1995; Rosengren, 1989, 1994)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고안하여 측정하였다. 평가내용은 주요 대중매체인 TV, 비디오 테이프, 만화, 컴퓨터 게임, 잡지, 책, 신문 등이 청소년의 생각, 태도, 행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환경은 청소년이 학교환경을 어떻게 지각하느냐를 측정하였다. 학교환경지각은 Genova(1981), Lovegrove와 Lewis(1982)가 개발하여 강정구(1986)가 번안한 것을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소비환경은 소비생활부분에 있어서 부모, 친구, 대중매체, 학교의 소비자교육이 어느 정도 소비자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측정하도록 구성되었다. 측정도구는 선행연구(구정화, 1997; 신혜선, 1994; 천경희, 1985; Moschis, 1987)를 기초로 청소년에 맞도록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였다. 소비자 사회화는 채규익(1997), 권귀연(1998), 구정화(1997)의 연구를 각기 참고하여 연구자들이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성에 따라 생활환경이 청소년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점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므로 조사대상자인 청소년을 성별로 나누어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조사대상자는 남학생 48.1%, 여학생 51.9%로 유사한 분포를 보이며, 중고생의 비율, 주거형태는 성별에 따라 각각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 특성을 살펴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남학생: 677명 여학생: 733명

변수	구분	남학생 빈도(%)	여학생 빈도(%)
부 의 직 업	무 직	55(8.7)	54(7.8)
	농업·축산업	165(26.1)	417(60.0)
	생산·판매·서비스직	224(35.5)	123(17.7)
	사무·관리직	157(24.9)	65(9.3)
	전문직	30(4.8)	36(5.2)
	계	631(100)	695(100)
거 주 지 역	대 도시	241(35.7)	236(32.3)
	중소도시	216(31.9)	360(49.2)
	농 촌	219(32.4)	135(18.5)
	계	676(100)	731(100)
학 년	중	354(52.4)	356(48.8)
	고	322(47.6)	373(51.2)
	계	676(100)	729(100)
부 의 학 력	중학교졸업 이하	162(24.2)	172(23.9)
	고등학교졸업	371(55.5)	413(57.3)
	대학교졸업 이상	136(20.3)	135(18.8)
	계	669(100)	720(100)
가 족 수	4명 이하	442(65.3)	352(48.0)
	5-6명	213(31.5)	327(44.6)
	7명 이상	22(3.2)	54(7.4)
	계	677(100)	733(100)
모 의 직 업	가정주부	348(53.8)	347(48.7)
	농업·축산업	82(12.7)	211(29.6)
	생산·판매·서비스직	193(29.8)	147(20.6)
	사무·관리직	23(3.6)	7(1.1)
	전문직	1(0.0)	0(0.0)
	계	647(100)	712(100)
주 관 적 가 정 경 제 수 준	아주 잘사는 편	7(1.0)	6(0.8)
	잘사는 편	51(7.6)	48(6.6)
	보 통	555(82.7)	622(85.5)
	못사는 편	50(7.4)	49(6.7)
	아주 못사는 편	8(1.3)	3(0.4)
	계	671(100)	728(100)
모 의 학 력	중·학교졸업 이하	270(40.3)	323(44.7)
	고등학교졸업	355(53.0)	355(49.1)
	대학교졸업 이상	45(6.7)	45(6.2)
	계	670(100)	723(100)
주 거 형 태	공공주택	385(57.2)	410(55.3)
	단독주택	273(40.6)	318(43.7)
	기 타	22(2.2)	7(1.0)
	계	680(100)	735(100)

보면 거주지역은 남학생이 대도시 거주(35.7%)가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반면, 여학생은 중소도시 거주(49.2%)가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부모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녀학생별로 부모 학력 모두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 아버지의 직업은 생산·판매·서비스직(35.5%)이, 여학생 아버지 직업은 농업·축산업(60.0%)이 가장 많았다. 가족수는 남학생집단의 경우 4명 이하(65.3%), 여학생 집단의 경우 4명 이하(48.0%)가 가장 많았다(표 1).

조사대상자의 측정변수별 특성을 <표 2>에서 살펴보면, 내면사회화수준은 5점 만점에 남학생이 2.30 여학생이 2.28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외면 사회화수준은 4점 만점에 남학생이 1.56, 여학생이 1.27로 남학생이 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생활환경의 평균 점수에서 남녀별 차이가 있는 것은 가족갈등, 부와의 관계, 모와의 관계, 친구환경, 대중매체 환경, 소비환경, 소비자 사회화 등이다. 가족갈등, 부와의 관계, 모와의 관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점수가 높아 가족갈등이 더 심하고,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친구환경에 대하여는 여학생(3.83)이 남학생(3.64)보다 친구와의 관계가 더 긴밀하며, 대중매체 환경에 대하여는 남학생(2.43)이

여학생(2.19)보다 대중매체의 영향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환경 변인의 평균은 남학생 3.23, 여학생 3.17로 남학생이 좀더 긍정적 소비환경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사회화 변인의 평균은 남학생 3.30, 여학생 3.49로 나타나 여학생 집단이 남학생 집단에 비하여 긍정적인 소비자사회화 수준을 보였다.

2. 생활환경과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내면사회화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은 모수추정치에 대한 허용도(tolerance)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각 환경요인별 하위변인을 포함한 모든 독립변수의 tolerance는 0.4~0.9의 크기를 보임으로써 전혀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상관관계의 범위는 .15에서 .69였으며, 성별로 본 각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표 3>과 같다.

성에 따른 청소년의 내면사회화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과 경로분석의 결과는 <표 4> 및 <그림 2>와 같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대중매체 환경($\beta = .495$), 친구환경($\beta = -.203$), 소비자 사회화($\beta = .224$), 가족스트레스($\beta = -.152$), 모와의 관계($\beta = .124$), 학교환경($\beta = -.082$)은 내면사회화에 직접영향을 미치며, 이 6개의 변수는 남자청소년의 내면사회화를 33%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수록, 가족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못할수록, 대중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학교의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학생의 지각이 부정적일수록, 소비자사회화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수록 남자 청소년은 부정적 내면사회화가 이루어져 공격성, 우울증, 불안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남자 청소년의 내면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환경 변수의 직접·간접 효과와 총 인과효과는 <표 5>에 나타나 있듯이 남자 청소년의 내면사회화에 직접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은 대중매체 환경이며, 그 다음이 소비자사회화, 친구환경, 가족 스트레스, 모와의 관계, 학교환경 순이다. 총효과를 살펴보면 대중매체 환경이 가장 많은 영

<표 2> 성별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생활환경변인 특성

생활환경요인	남 학생		여 학생		t 값
	평균 (만점)	표준 편차	평균 (만점)	표준 편차	
내면사회화	2.30(5)	.78	2.28(5)	.69	0.51
외면사회화	1.56(4)	.50	1.27(4)	.28	13.26***
가족갈등	2.33(5)	.56	2.26(5)	.56	2.36*
부와의 관계	2.28(5)	.68	2.19(5)	.66	2.52*
모와의 관계	2.13(5)	.58	2.06(5)	.57	2.28*
가족스트레스	2.95(4)	.65	2.92(4)	.64	0.87
주거환경	3.20(5)	.62	3.25(5)	.54	-1.62
소비환경	3.23(5)	.44	3.17(5)	.46	2.52*
친구환경	3.64(5)	.45	3.83(5)	.41	-8.27***
대중매체환경	2.43(5)	.56	2.19(5)	.50	8.49***
학교환경	2.32(5)	.73	2.38(5)	.64	-1.64
소비자사회화	3.30(5)	.71	3.49(5)	.60	-5.42***

*P<.05 **P<.01 ***P<.001

〈표 3〉 관련변인들의 상관관계

상단:남학생 (하단):여학생

구분	내면 사회화	외면 사회화	가족 갈등	부와의 관계	모와의 관계	가족 스트레스	주거 환경	친구 환경	대중매체 환경	학교 환경	소비 환경	소비자 사회화
내면 사회화	1.000 (1.000)											
외면 사회화	.377*** (.324***)	1.000 (1.000)										
가족 갈등	.377 (.393***)	.284*** (.312***)	1.000 (1.000)									
부와의 관계	.411*** (.455***)	.348*** (.289***)	.607*** (.684***)	1.000 (1.000)								
모와의 관계	.417*** (.385***)	.348*** (.347***)	.491*** (.588***)	.690*** (.657***)	1.000 (1.000)							
가족 스트레스	-.247*** (-.409***)	-.153*** (-.249***)	.335*** (-.393***)	-.384*** (-.449***)	-.318*** (-.419***)	1.000 (1.000)						
주거 환경	-.086* (-.273***)	-.114* (-.166***)	-.281*** (-.437***)	-.197*** (-.394***)	-.144** (-.377***)	.186*** (.269***)	1.000 (1.000)					
친구 환경	-.415*** (-.399***)	-.241*** (-.207***)	-.344*** (-.277***)	-.283*** (-.263***)	-.287** (-.234***)	.222*** (.209***)	.128** (.242***)	1.000 (1.000)				
대중매체 환경	.512*** (.366***)	.498*** (.478***)	.218*** (.111*)	.213*** (.132**)	.211*** (.105*)	-.132* (-.132**)	-.101* (-.122**)	-.213*** (-.198**)	1.000 (1.000)			
학교 환경	-.198*** (-.208***)	-.215*** (-.286***)	-.215*** (-.186***)	-.219*** (-.175***)	-.196*** (-.185***)	.167*** (.146***)	.221*** (.206***)	.157*** (.242***)	-.109* (.109*)	1.000 (1.000)		
소비 환경	-.501*** (-.291***)	-.493*** (-.299***)	-.219*** (-.110**)	-.301*** (-.105*)	-.330*** (-.323***)	.159*** (.101*)	.209*** (.144**)	.161*** (.301***)	-.501*** (.491***)	.155** (.215***)	1.000 (1.000)	
소비자 사회화	.419*** (-.375***)	-.385*** (-.357***)	-.254*** (-.289***)	-.296*** (-.301***)	-.312*** (-.319***)	.167*** (.299***)	.221*** (.247***)	.157*** (.261***)	-.499*** (-.392***)	.123** (.297***)	.627*** (.594***)	1.000 (1.000)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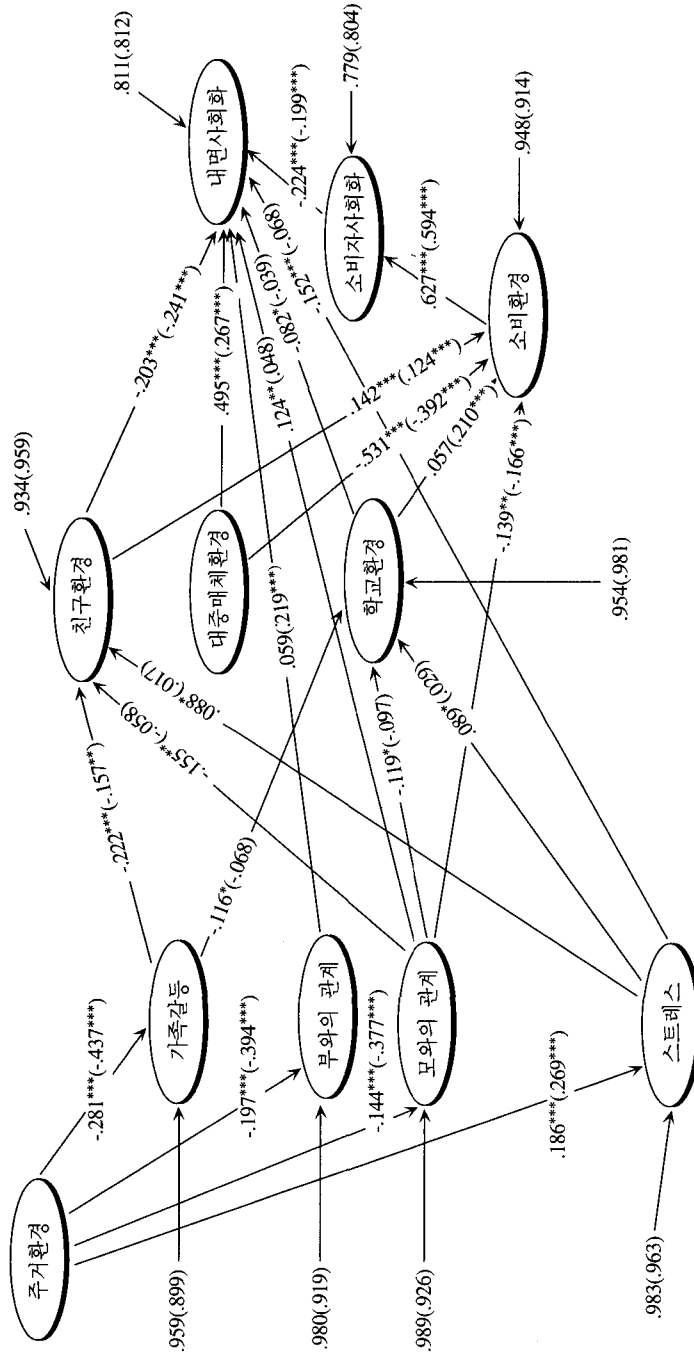
향을 미치고, 그 다음이 소비자사회화, 친구환경, 모와의 관계, 가족 스트레스, 소비환경, 학교환경, 가족갈등 순이다.

여자 청소년의 내면사회화는 부와의 관계($\beta = .219$), 친구환경($\beta = -.241$), 대중매체 환경($\beta = .267$), 소비자 사회화($\beta = .199$)에 의해 직접영향을 받으며, 이 4개의 변수는 여자 청소년의 내면사회화를 33%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수록,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못할수록, 대중매체체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소비자 사회화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수록 여자 청소년은 부정적 내면사회화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여자 청소년의 내면사회화에 대한 각 변수의 직접·간접 효과와 총 인과효과는 〈표 5〉에 나타나 있

는 것처럼 여자 청소년의 내면사회화에 직접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은 대중매체 환경이며, 그 다음이 친구환경, 부와의 관계, 소비자사회화 순이다. 총효과를 살펴보면 대중매체 환경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이 친구환경, 부와의 관계, 소비자사회화, 소비환경, 가족갈등, 학교환경, 모와의 관계, 주거환경 순이다. 각 변수들간의 경로계수의 남녀 차이는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경로계수는 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의 성에 관계없이 생활환경 요인이 내면사회화를 설명하는 정도는 남녀 모두 33%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여자청소년이 남자보다 우울증과 불안과 같은 내면적 문제를 더 가지고 있다는 기존



*P<.05 **P<.01 ***P<.001 위에 표시한 계수는 남학생, (여학생)집단의 순서임.

<그림 2> 청소년의 내면 사회화와 관련된 생활환경 변인의 인과모형 경로분석 결과

〈표 4〉 경로모형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상단: 남학생/ 하단: (여학생)

종속변수 독립변수	내면 사회화	외면 사회화	가족 갈등	부와의 관계	모와의 관계	가족 스트레스	친구 환경	학교 환경	소비 환경	소비자 사회화
가족 갈등	.058 (.043)	.020 (.127)					-.222*** (-.157**)	-.116* (-.068)	-.006 (-.078)	
부와의 관계	.059 (.219***)	.154** (.015)					-.016 (-.094)	-.063 (-.042)	-.077 (-.057)	
모와의 관계	.124** (.048)	.097* (.187***)					-.155** (-.058)	-.119* (-.097)	-.139** (-.166***)	
가족 스트레스	-.152*** (-.068)	-.003 (-.023)					.088* (.017)	.089* (.029)	.041 (.034)	
주거 환경	-.069 (-.049)	-.099* (-.085*)	-.281*** (-.437***)	-.197*** (-.394***)	-.144*** (-.377***)	.186*** (.269***)				
친구 환경	-.203*** (-.241***)	-.059 (-.074*)							.142*** (.124***)	
대중 매체환경	.495*** (.267***)	.467*** (.379***)							-.531*** (-.392***)	
학교 환경	-.082* (-.039)	-.251*** (-.176***)							.057 (.210***)	
소비 환경										.627*** (.594***)
소비자 사회화	-.224*** (-.199***)	-.205*** (-.222***)								
R ²	.343 (.341)	.237 (.227)	.079 (.191)	.039 (.155)	.021 (.142)	.034 (.073)	.128 (.079)	.089 (.037)	.102 (.165)	.393 (.353)
Adj R ²	.334 (.333)	.227 (.217)	.077 (.190)	.037 (.154)	.019 (.141)	.033 (.072)	.122 (.073)	.084 (.032)	.093 (.157)	.386 (.346)

*P<.05 **P<.01 ***P<.001 위의 계수는 모두 표준화된 회귀계수임.

연구(Broderick, 1998; Peterson et al., 1991)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보여주듯이(Barber, 1990) 우울증은 여학생이 높고, 공격성은 남학생에게 높으나 불안증은 성에 따라 차이가 없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표면적인 조사연구에서는 여자청소년이 남자보다 내면적인 문제행동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비행청소년을 통한 질적인 연구에서는 남녀 차가 없다는 Nolen-Hoeksema와 Girus(1994)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어 미래연구는 내면적 행동에 속하는 우울증, 공격성, 불안과 같은 하위변인을 더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대중매체는 남녀 청소년 모두의 내면사회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생

활환경 요인이 됨을 보여주어 청소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대중매체라고 주장한 Strasburger(1995)의 주장을 입증해준다. 대중매체 다음으로 남자 청소년의 내면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소비자 사회화임에 비해 여자 청소년에게는 친구환경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성인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Milkie와 Peltola(1999)는 성인남성의 내면적 문제는 현시적인 물질에 관련성이 높고 성인여성은 인간관계, 특히 친구관계의 질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최근 연구에서 밝혀 내었다.

주거환경은 남학생 집단의 경우 모와의 관계, 가족 스트레스 경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내면사회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여학생 집단에서는 부

와의 관계 경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내면사회화에 영향을 미쳐서 성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임을 알 수 있다. 주거환경 수준이 남녀학생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더라도 가족환경의 하부요인에 대한 주거환경의 영향력은 여학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주거환경의 영향력이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족환경은 모와의 관계와 가족 스트레스 요인이 남학생의 내면사회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족환경 요인인 반면 여학생은 부와의 관계만이 내면사회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수록, 가족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남학생은 내면사회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부와의 관계가 갈등적일수록 심리적 불안감을 주거나, 내면화된 특성의 문제를 가져오게 하여 내면사회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보다 청소년 시기에 더 반대성의 부모와의 질적인 관계가 사회화에 중요하다는 Harold와 Conger(1997)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가족갈등은 청소년의 내면사회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보다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기존의 선행연구(Brody, Arias, & Fincham, 1996; Kline et al., 1991)와 불일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남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갈등은 친구환경과 학교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나 여학생에게는 친구 환경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즉 남학생은 가족갈등이 적으면 적을수록 친구관계가 원만하고,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력이 높으나 여학생은 가족갈등이 적을수록 친구관계가 원만함을 나타낸다. 또한 모와의 관계나 가족스트레스는 남학생의 친구환경이나 학교환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학생에게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가족환경의 영향을 더 받는다고 지적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Brody et al., 1996). 모와의 관계는 남학생이나 여학생의 소비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모와의 관계의 영향력은 여학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갈

등적일수록 청소년은 바람직한 소비환경을 갖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친구환경은 남녀 학생 모두의 내면사회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이희연, 1994; Hartup, 1996). 즉 친구관계가 원만할수록 청소년은 긍정적인 방향의 내면적 특성을 가진다. 또한 친구환경은 소비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의 내면화에 친구환경은 간접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이는 친구관계가 원만할수록 바람직한 소비환경을 이루게 되고, 결국은 청소년의 내면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있다.

대중매체 환경은 남녀 학생 모두의 내면사회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대중매체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일수록 내면사회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대중매체의 전달 내용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할 때 사회화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더욱이 대중매체 환경은 소비환경을 통하여 내면사회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중매체가 청소년의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대중매체에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바람직하지 못한 소비환경을 갖게 되어 청소년들은 자신이 불만족스러운 소비환경을 갖게 될 때 공격성, 불안, 우울증과 같은 내면적 문제를 가질 수 있다.

학교환경은 남학생에게는 내면사회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반면에 여학생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 학생이 같은 학교 환경에 노출될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서 학교환경이 긍정적일수록 바람직한 내면사회화를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Glasser(1988)는 청소년의 내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는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고, 인정받으며, 소속감을 느끼고, 신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보았다. 본 연구 결과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Glasser가 제시한 이러한 학교환경의 조성이 보다 더 학생들의 내면사회화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5〉 청소년의 내면사회화의 인과모델 총효과 분해 상단:남학생 하단:(여학생)

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가족갈등	부와의관계	모와의관계	가족스트레스	친구환경	학교환경	소비환경	소비자사회화	
가족갈등						.049 (.040)				.049 (.040)
부와의관계	(.219)									(.219)
모와의관계	.124					.034	.010	.020 (.020)		.188 (.020)
가족스트레스	-.152					-.020	-.007			-.179 (.000)
주거환경		-.016 (-.018)	(-.086)	-.010 (-.007)	-.004					-.030 (-.111)
친구환경	-.203 (-.241)							-.020 (-.015)		-.223 (-.256)
대중매체환경	.495 (.267)							.075 (.046)		.570 (.313)
학교환경	-.082							(-.025)		-.082 (-.025)
소비환경									-.140 (-.118)	-.140 (-.118)
소비자사회화	-.224 (-.199)									-.224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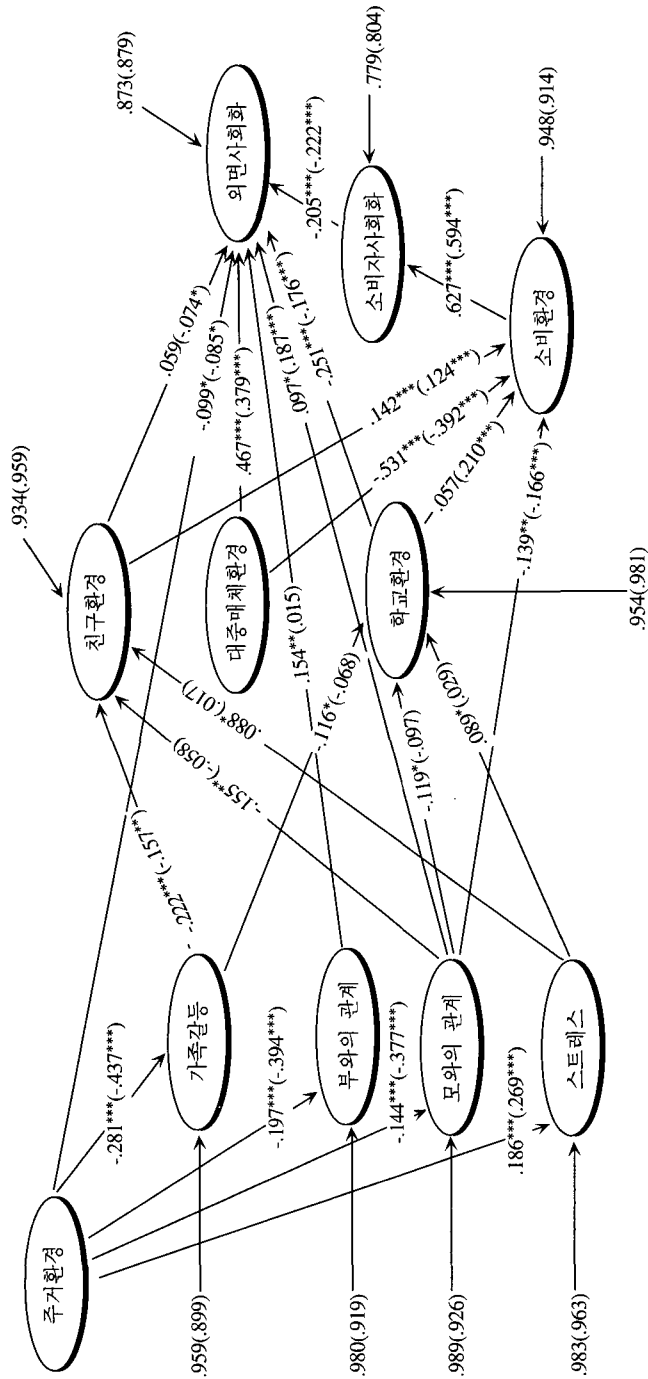
소비환경은 소비자사회화의 경로를 통하여 남녀 집단 모두 간접적으로 청소년의 내면사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이 모든 경로에서 일관되게 남학생이 여학생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환경이 소비자사회화를 통하여 청소년의 내면사회화에 미치는 영향력의 남녀별 차이를 이중으로 만드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소비환경이 소비자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상대적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 동일한 소비환경 조건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남학생의 소비자사회화 수준의 변화 폭이 여학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소비자사회화가 청소년의 내면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역시 남학생이 여학생 집단보다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

녀 청소년 집단 모두 동일한 소비자사회화 수준의 변화가 있을 경우, 이로 인한 내면사회화의 변화 폭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생활환경과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외면사회화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외면사회화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과 경로분석의 결과는 〈표 4〉와 〈그림 3〉과 같다. 남자 청소년의 외면사회화는 대중매체 환경($\beta = .467$), 학교환경($\beta = -.251$), 소비자 사회화($\beta = .205$), 부와의 관계($\beta = .154$), 주거환경($\beta = -.099$), 모와의 관계($\beta = .097$)에 의해 직접영향을 받으며, 이 6개의 변수는 남자청소년의 외면사회화를 22.7%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수록, 주거환경에 만족하지 못할수록, 대중매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학교의 전반적인 환경에



*P<.05 **P<.01 ***P<.001 위에 표시한 계수는 남학생, (여학생)질단의 순서임.

<그림 3> 청소년의 외면사회화와 관련된 생활환경 변인의 인과모형 경로분석 결과

〈표 6〉 내면사회화 경로계수 유의차 검증

경로명 (내면사회화)	남 학생		여 학생		t 값
	경로계수	표준오차	경로계수	표준오차	
주 거-가족갈등	-281	.040	-.437	.042	71.43***
주 거-부관계	-.197	.050	-.394	.052	72.51***
주 거-모관계	-.144	.043	-.377	.045	99.41***
주 거-스트레스	.186	.045	.269	.049	-33.16***
가족갈등-친구	-.222	.045	-.157	.039	-28.88***
가족갈등-학교	-.116	.055	-.068	.053	-16.66***
부 관계-내면사회화	.059	.055	.219	.051	-56.51***
모 관계-내면사회화	.124	.059	.048	.054	25.17***
모 관계-학교	-.119	.057	-.097	.049	-7.74***
모 관계-소비	-.139	.046	-.166	.037	12.09***
스트레스-친구	.088	.029	.017	.027	47.47***
스트레스-학교	.089	.041	.029	.036	29.10***
스트레스-내면사회화	-.152	.043	-.068	.039	-38.32***
친 구-내면사회화	-.203	.061	-.241	.058	11.97***
친 구-소비	.142	.047	.124	.040	7.71***
대중매체-내면사회화	.495	.129	.267	.255	-72.53***
대중매체-소비	-.531	.025	-.392	.073	-48.56***
학 교-내면사회화	-.082	.042	-.039	.043	-18.99***
학 교-소비	.057	.033	.210	.029	-92.16***
소 비-소비사회화	.627	.069	.594	.106	6.98***
소비자사회화-내면사회화	-.224	.052	-.199	.055	-8.77***

*P<.05 **P<.01 ***P<.001

대한 학생의 지각이 부정적일수록, 소비자 사회화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수록 남자 청소년은 부정적 외면사회화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남자 청소년의 외면사회화에 대한 각 변수의 직접·간접 효과와 총 인과효과는 〈표 7〉에 나타나 있다. 남자 청소년의 외면사회화에 직접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은 대중매체 환경이며, 그 다음이 학교환경, 소비자사회화, 부와의 관계, 주거환경, 모와의 관계 순이다. 총효과를 살펴보면 대중매체 환경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이 학교환경, 소비자사회화, 주거환경, 부와의 관계, 모와의 관계, 가족갈등, 가족 스트레스, 소비환경, 친구환경 순이다.

여자 청소년의 외면사회화는 모와의 관계($\beta = .187$), 주거환경($\beta = .085$), 친구환경($\beta = -.074$), 대중매체 환경($\beta = .379$), 학교환경($\beta = .176$), 소비자 사회화($\beta = .222$)에 의해 직접영향을 받으며, 이 6개의

변수는 여자 청소년의 외면사회화를 21.7%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수록, 주거환경에 불만족할수록,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못할수록, 대중매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학교의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학생의 지각이 부정적일수록, 소비자 사회화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수록 여자 청소년은 부정적 외면사회화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여자 청소년의 외면사회화에 대한 각 변수의 직접·간접 효과와 총 인과효과는 〈표 7〉에 나타나 있다. 외면사회화에 대한 각 변수들간의 경로계수의 남녀 차이는 〈표 8〉에 나타나 있다. 여자 청소년의 외면사회화에 직접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은 대중매체 환경이며, 그 다음이 소비자사회화, 모와의 관계, 학교환경, 주거환경, 친구환경 순이다. 총효과를 살펴보면 대중매체 환경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이 소비자사회화, 모와의

〈표 7〉 청소년의 외면사회화의 인과모델 총효과 분해 상단:남학생 하단:(여학생)

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가족갈등	부와의관계	모와의관계	가족스트레스	친구환경	학교환경	소비환경	소비자사회화	
가족갈등						.004 (.015)	.029			.033 (.015)
부와의관계	.154									.154 (.000)
모와의관계	.097 (.187)					.003	.030	.018 (.022)		.148 (.209)
스트레스						-.002	-.022			-.024 (.000)
주거환경	-.099 (-.085)	-.001 (-.006)	-.030	-.022 (-.078)	-.004					-.156 (-.169)
친구환경	(-.074)							-.018 (-.016)		-.018 (-.090)
대중매체환경	.467 (.379)							.068 (.052)		.535 (.431)
학교환경	-.251 (-.176)							(-.028)		-.251 (-.204)
소비환경									-.128 (-.132)	-.128 (-.132)
소비자사회화	-.205 (-.222)									-.205 (-.222)

관계, 학교환경, 주거환경, 소비환경, 친구환경, 가족갈등 순이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성에 관계없이 생활환경요인이 외면사회화를 설명하는 정도가 유사하며, 대중매체는 남녀 청소년 모두의 외면사회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중매체환경 다음으로 남자 청소년의 외면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학교환경임에 비해 여자 청소년에게는 소비자사회화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청소년 비행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시점이 학교생활의 부적응에 있고, 여자청소년은 또래 청소년과는 다른 외모(physical appearance)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MacKinnon-Lewis와 Lofquist(1996)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남자청소년에게는 부모와의 관계 모두 외면사회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자청소년에게는 모와의 관계만이 영향을 미

치고 있어 부모-자녀간의 관계는 여아보다 남아의 외면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Gerard와 Buehler(1999)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이와같이 본 연구결과는 대부분 청소년의 외적문제행동에 관련된 환경요인을 친구나 가족 또는 학교환경으로 본 지금까지의 연구에 많은 점을 시사해 주고, 청소년 문제를 접근하는 실무자들은 대중매체의 중요성과 남녀차이를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해주고 있다. 특히 미래연구는 대중매체와 청소년의 소비자사회화와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해 주고 있다.

주거환경은 남녀집단 모두 외면사회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녀청소년 별로 주거환경수준이 유의한 차이가 없는 동일한 주거환경에서도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에게 주거환경이 외면사회화에

<표 8> 외면사회화 경로계수 유의차 검증

경로명 (외면사회화)	남 학생		여 학생		t 값
	경로계수	표준오차	경로계수	표준오차	
주 거-가족갈등	-.281	.040	-.437	.042	71.43***
주 거-부관계	-.197	.050	-.394	.052	72.51***
주 거-모관계	-.144	.043	-.377	.045	99.41***
주 거-스트레스	.186	.045	.269	.049	-33.16***
가족갈등-친구	-.222	.039	-.157	.039	-31.27***
가족갈등-학교	-.116	.055	-.068	.053	-16.66***
부 관계-외면사회화	.154	.036	.015	.022	86.63***
모 관계-친구	-.155	.039	-.058	.036	-48.41***
모 관계-외면사회화	.097	.074	.187	.023	-30.32***
모 관계-학교	-.119	.057	-.097	.049	-7.74***
모 관계-소비	-.139	.046	-.166	.037	12.08***
스트레스-친구	.088	.029	.017	.027	48.14***
스트레스-학교	.089	.041	.029	.036	29.10***
스트레스-외면사회화	-	.027	-	.017	-
친 구-외면사회화	-.059	.039	-.074	.025	8.52***
친 구-소비	.142	.047	.124	.040	7.71***
대중매체-외면사회화	.467	.082	.379	.080	20.37***
대중매체-소비	-.531	.025	-.392	.073	-48.56***
학 교-외면사회화	-.251	.027	-.176	.018	-60.86***
학 교-소비	.057	.033	.210	.029	-92.16***
소 비-소비사회화	.627	.069	.594	.106	6.98***
소비자사회화-외면사회화	-.205	.034	-.222	.024	10.77***

*P<.05 **P<.01 ***P<.001

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주거환경의 만족도를 높여 주었을 때 청소년의 외면적 문제행동, 특히 남학생의 문제행동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주거환경은 부모와의 관계, 모와의 관계를 통하여 남학생의 외면사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여학생에게는 모와의 관계를 통하여 외면사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주거환경의 만족도가 높은 남학생은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외면적인 문제행동에 덜 영향을 미치고, 여학생은 어머니와 긍정적인 관계를 보여 외면사회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가족환경 중 남학생의 외면사회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와 모와의 관계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모와의 관계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 특히 모와의 관계는 남학생 보다 여학생에

게 더 큰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남학생은 외면사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아의 행동은 부모 모두의 규칙이나 규범으로부터 통제되고 여아의 행동은 어머니의 행동통제에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며(Sharp & Cowie, 1998), 자녀들은 같은 성의 부모에게는 행동을 모델링하여 동일시하고, 다른 성의 부모에게는 애정을 받는 애착대상으로 여긴다는 정신분석 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가족스트레스는 외면사회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 역시 스트레스는 외면적 적응보다는 내면적 적응에 더 관련이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Shim & Vuchinich, 1996). 이러한 결과들이 청소년의 내면사회화와 외면사회화는 독립적인 관계인지 상호작용적인 관계인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서로 독립적인 변수로 연구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

다. 가족갈등은 남학생이나 여학생 모두 친구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모와의 관계는 남학생에게 친구환경과 소비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족스트레스는 남학생의 친구환경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환경은 여학생만 외면사회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그 영향력은 내면사회화보다 적게 나타났다. 즉, 친구관계가 원만한 여학생일수록 긍정적인 외면사회화를 갖는다는 것인데, 이는 친구환경이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과 전략을 배우고 습득할 수 있는 사회적 배경으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남승희(1993)의 연구와 또래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이 공격적 행동을 조절하고 인지 및 사회적 기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French와 Tyne(1982)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친구환경은 또한 소비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영향력이 컸다.

대중매체 환경은 남학생 여학생 모두의 외면사회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영향력은 남학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늘날 대부분의 실험 및 조사연구에서 폭력영화를 본 집단에서 공격성이나 비행이 많이 나타나고, 음란비디오가 청소년의 성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Amett, Larson, & Offer, 1995). 대중매체 환경은 청소년의 외면사회화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예측요인이 됨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환경은 남녀 청소년의 외면사회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즉 학교환경에 만족할수록 남녀학생의 외면사회화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상대적 영향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 학생이 같은 학교 환경에서 생활할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환경이 긍정적일수록 바람직한 외면사회화를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병술(1983)은 공격적인 외면 정서는 청소년기에 주로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기 욕구불만에서 오는데 이러한 요인에는 남녀 차이가 있어 여자는 언어적이며 남자는 직접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한

다. 위의 연구결과는 우리 나라 청소년들이 대부분 지내는 일상생활의 터가 학교이기에 생활환경 중에서 학교환경의 심리적 분위기를 개선시키는 것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외면사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소비환경은 소비자사회화의 경로를 통하여 남녀 모두 간접적으로 청소년의 외면사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소비환경과 소비자사회화 변인간의 경로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갖는 반면, 소비자사회화와 청소년의 외면사회화 변인간의 경로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환경이 청소년의 외면사회화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의 남녀별 차이는 경로과정에서 서로 상쇄될 수 있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청소년의 외면사회화의 인과모델 충분히 효과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좀 더 강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 학생 모두 동일한 소비환경에 노출된다 할지라도 여학생 집단에서 소비환경은 소비자사회화 변인을 통하여 좀더 강하게 외면사회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비환경이 소비자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분석은 내면사회화의 경우와 동일하게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소비자사회화가 청소년의 외면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분석은 내면사회화의 경우와 반대로 남녀 청소년 집단 모두 동일한 소비자사회화 수준의 변화가 있을 경우, 이로 인한 외면사회화의 변화 폭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 본 연구에서와 같이 조사대상자 중 여학생의 소비자사회화 수준이 남학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좀더 높은(긍정적) 수준을 보이고 있다면, 소비자사회화의 영향으로 인한 외면사회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여학생이 좀더 긍정적일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환경 중 어머니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대중매체의 영향력, 학교환경에 대한 학생의 지각 변인은 소비환경을 통

하여 소비자사회화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남녀별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청소년이 어머니 혹은 친구와의 관계가 긴밀할수록, 대중매체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강할수록, 그리고 학교환경에 대한 지각이 클수록 소비환경이 소비자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에 가중치를 두는 효과를 주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으며, 그 가중치가 남녀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어머니의 현시소비성향 정도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동일한 소비환경), 어머니와의 관계가 긴밀한 청소년일수록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하여 소비자사회화 과정에서 어머니의 현시소비성향이 자녀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좀더 나아가, 어머니와의 긴밀성 정도가 남녀 청소년에 각각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어머니의 현시소비성향 전달 가능성의 정도가 남녀별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와의 긴밀한 정도는 여학생 집단에서, 친구환경과 대중매체환경은 남학생 집단에서 소비환경이 소비자사회화에 영향을 미칠 때 상대적으로 큰 가중치를 두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학교환경에 대한 학생의 지각 수준은 남학생의 경우 소비환경이 소비자사회화에 영향을 줄 때, 아무런 가중치를 실어 주지 못하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 가중치를 두어 작용한다. 이는 청소년의 내면사회화의 경우도 동일하다.

V. 결론 및 제언

다변인 모델을 통하여 생활환경 요인의 영향력이 청소년의 사회화에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한 모델 안에서 비교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환경 요인이 청소년의 내면사회화와 외면사회화를 예측할 수 있는 설명력에는 성에 따라 차이가 없었고, 생활환경은 성차에 관계없이 청소년의 외면사회화보다 내면사회화를 더 많이 설명해주었다.
2. 남자 청소년의 내면사회화에 직접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은 대중매체환경이

며, 그 다음이 소비자사회화, 친구환경, 가족 스트레스, 모와의 관계, 학교환경 순이다. 즉, 대중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소비자사회화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수록,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못할수록, 가족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수록, 학교의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학생의 지각이 부정적일수록 남자 청소년은 부정적 내면사회화가 이루어져 공격성, 우울증, 불안이 높다.

3. 여자 청소년의 내면사회화에 직접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은 대중매체 환경이며, 그 다음이 친구환경, 부와의 관계, 소비자사회화 순이다. 그러므로 대중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못할수록, 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수록, 소비자사회화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수록 여자 청소년은 부정적 내면사회화가 이루어진다.
4. 남자 청소년의 외면사회화에 직접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은 대중매체 환경이며, 그 다음이 학교환경, 소비자사회화, 부와의 관계, 주거환경, 모와의 관계 순이다. 그러므로 대중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학교의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학생의 지각이 부정적일수록, 소비자사회화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수록,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수록, 주거환경에 만족하지 못할수록, 어머니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수록 남자 청소년은 부정적 외면사회화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5. 여자 청소년의 외면사회화에 직접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은 대중매체 환경이며, 그 다음이 소비자사회화, 모와의 관계, 학교환경, 주거환경, 친구환경 순이다. 그러므로 대중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소비자사회화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수록, 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수록, 학교의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학생의 지각이 부정적일수록, 주거환경에 불만족할수록,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못할수록 여자 청소년은 부정적 외면사회화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성에 관계없이 청소년의 내면·외면 사회화에 대중매체 환경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래연구는 대중매체의 종류나 내용, 또한 시간에 대한 영향력, 이용하는 상황, 대중매체로부터 받는 영향력 등을 한 모델 안에서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시기는 가족환경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자신의 환경을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시기라서 다양한 간접경험을 주는 대중매체의 영향력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증적인 대중매체 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괄목할 만한 점은 주거환경이 가족환경에 미치는 영향인데 미래 연구는 이 두 환경간의 상호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주거환경은 본 연구모델에서 제외된 사회경제적 변인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어 미래연구는 주거환경이 사회경제적 변인을 간접적으로 측정해 줄 수 있음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환경과 친구환경의 상대적 중요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 모델 안에서 두 변인을 비교해 보았을 때 가족환경 중 부모-자녀관계가 친구환경 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고, 부모-자녀관계가 친구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됨을 보여주었다. 특히 남자청소년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두 관계가 모두 사회화에 중요한 예측변인이 되고 있고, 여학생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사회화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청소년의 관계에 대한 미래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미래 연구는 친구환경을 단순히 친구관계의 질적인 면을 평가하기보다는 어떤 특성의 친구를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청소년의 사회화에 친구환경이 미치는 영향력이 적었는데 이는 친구환경을 친구관계의 질로 측정했기 때문으로 아닌가 생각된다. 더욱이 일탈이나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친구관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 미래연구는 친구환경을 정확히 측정

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고안해야 한다.

넷째, 가족, 친구, 학교환경이 청소년의 사회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사회화가 대중매체 다음으로 청소년의 사회화에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사회화는 대중매체의 영향을 받아 청소년의 사회화에 간접적인 영향력이 다른 환경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소비자사회화에 영향을 받는 것인지, 소비자사회화가 대중매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본 연구에서는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소비자사회화와 대중매체 환경이 청소년의 사회화에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그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어 미래 연구는 두 변수간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미래 연구는 발달연령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본 연구는 성에 따라 생활환경이 청소년의 사회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는데 연령이 어릴수록 생활환경의 영향을 더 받는다는 기존의 연구를 이론적 모델의 검증을 통해 비교분석하여 청소년을 발달연령에 따라 이해하는 기초적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1) 강정구(1986). 교육성과에 영향을 주는 환경변인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 구정화(1997). 청소년 소비문화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97-14.
- 3) 김문희(1996). 청소년 소비자의 과소비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 김정화(1991). 학급풍토,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 김충련(1997). SAS라는 통계상자. 서울: 데이터플러스.
- 6) 김형태(1989). 학교상담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학생지도연구 4집.
- 7) 김형태(1996). 학교·교사의 역할, 355-373. 청소년문제론. 한국청소년개발원.
- 8) 나병술(1983). 교육심리학. 교학 연구사

- 9) 남승희(1993). 성별과 학년에 따른 청소년의 친구관계. 한국청소년연구 제 15호. 한국청소년개발원.
- 10) 문용린(1992). 학생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와 대처방안, 체육청소년부, 우리 청소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와 대처방안 연구발표.
- 11) 박세권(1995). 청소년의 사회화에 미치는 대중매체의 영향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2) 박종오(1988). 우리 나라 청소년 소비자의 사회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3) 배연옥(1990). 주거과밀이 청소년의 사회성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 신혜선(1994). 청소년기 자녀의 소비자사회화유형과 소비자능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5) 유성희(1982). 청소년의 주거의식에 관한 조사연구-개인공간의 프라이버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6) 윤미경(1991). 청소년소비자의 광고 수용태도와 의류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7) 윤영선(1990).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주거내 프라이버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8) 윤영아(1992). 청소년의 광고에 대한 태도와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9) 윤홍섭(1995). 환경심리학. 성원사.
- 20) 진귀연(1998). 가족구조환경, 물질주의 및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3), 87-104.
- 21) 정영숙 · 김영희 · 박경옥 · 이희숙 · 채정현 · 이종섭(1999). 청소년과 생활환경-생활환경이 청소년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2), 175-197.
- 22) 정혜정(1992). 학급의 사회적 풍토가 학생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교사 및 급우에 대한 학생의 태도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3) 채규익(1997). 청소년들의 경제사회화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4) 천경희(1985). 청소년의 소비자사회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5) 최숙진(1983). TV광고에 의한 청소년 소비자의 사회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6) 최우신(1999). 청소년의 연예인 이상화와 심리 및 가족환경 특성.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7) 한규옥(1994). 학급풍토 지각이 초등학생의 대인관계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8) Arnett, J. J.(1994). Sensation seeking: A new conceptualization and a new scale, *Personal Individual Difference*, 16, 289-296
- 29) Arnett, J. J., Larson, R., & Offer, D. (1995). Beyond effects: Adolescents as active media use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4(5), 511-533.
- 30) Barber, B.K.(1994). Effects of family, marital, and parent-child conflict on adolescent self-derogation and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964-974.
- 31) Brody, G.H., Arias, U., & Fincham, F.D. (1996). Linking marital and child attributions to family processes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4, 408-421.
- 32) Campbell, J. D.(1964). Peer relations in childhood. In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1, M. L. Hoffmen(Ed.), 289-322.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33) Churchil Jr., G. A. & Moschis, G. P.(1979). Television and interpersonal influences on consumer learn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6, 23-35.
- 34) Derogatis, L., Lipman, R., Uhlenhuth, E., & Coti, L.(1976). The Hopkins Symptom Checklist (HSCL): A self report symptom inventory. *Behavioral Science*, 19, 1-13.
- 35) Dower, D.B., & Johnston, K.A. (1979). Adolescent

- use of selected areas in the parental dwelling.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November, 8(2), 101-109.
- 36) Eccles, J.S., Midgley, C., & Wigfield, A.(1993). Development during adolescence: The impact of stage-environment fit on young adolescents' experiences in schools and in families. *American Psychologist*, 48(2), 90-101.
- 37) Erel, O., & Burman, B.(1995). Interrelatedness of marital relations and parent-child relation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8, 108-132.
- 38) Fincham, F.D., Grych, J.H., & Osborne, L.M.(1994). Does marital conflict cause child maladjustment? Directions and challenges for longitudinal research.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8, 128-140.
- 39) Gecas, V., & Seff, M.A.(1990). Families and adolescents: A review of the 1980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941-958.
- 40) Gerard, J.M., & Buehler, C.(1999). Multiple risk factors in the family environment and youth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343-361.
- 41) Gottfredson, M., & Hirshi, T.(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42) Genova, W.J.(1981). A study of interaction effects of school and home environments on students of varying race/ethnicity, class, and gender(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221622).
- 43) Glasser, W.(1988). On students' needs and team learning: A conversation with William Glasser. *Educational Leadership*, 38-45.
- 44) Goldberg, M. E., & Gorn, G. T.(1978). Some unintended of consequences of TV advertising to childre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5, 22-29.
- 45) Harold, G.T., & Conger, R.D.(1997).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 distress: The role of adolescent awareness. *Child Development*, 68, 333-350.
- 46) Hartup, W.W.(1996).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 and their developmental significance. *Child Development*, 67, 1-13.
- 47) Heimstra, N. W. & McFaling, L.H. (1978). *Environmental psychology*. Second Edition, Brook/Cole Publishing Company, Monterey, California.
- 48) Hudson, W.W. (1982). *The clinical measurement package: A field manual*. The Dorsey Press.
- 49) Kline, M., Johnston, J. R., & Tschann, J. M. (1991). The long shadow of marital conflict: A model of children's postdivorce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297-309.
- 50) Larson, R. (1995). Secrets in the bedroom: Adolescent' private use of media.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4(5), 535-550.
- 51) Long, N., Slater, E., Forehand, R., & Fauber, R. (1988). Continued high or reduced interparental conflict following divorce: Relation to young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467-469.
- 52) Lovegrove, M.N., & Lewis, R.(1982). Classroom-control procedures used by relationship centered teachers. *Journal of Education for Teaching*, 8(1), 55-66.
- 53) MacKinnon-Lewis, C.M., & Lofquist, A.(1996).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boy's depression and aggression: Family and school linkag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4), 490-500.
- 54) McCord, J. (1990). Long-term perspectives on parenting absence. In L. Robins & M. Rutter (Eds.), *Straight and devious pathways from childhood to adulthoo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55) McCubbin, H.L., & Patterson, J.M. (1987). A-FILE. In McCubbin, H.I., & Thompson, A.I. (Eds.), *Family assessment inventories for research*

- and practic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Press.
- 56) Milkie, M.A., & Peltola, P.(1999). Playing all the roles: Gender and the work-family balancing a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476-490.
- 57) Moschis, G. P., & Churchill Jr., G. R.(1978). Consumer socialization: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5, 599-609.
- 58) Moschis, G. P., & Moore, R. L.(1978). An analysis of the acquisition of some consumer competencie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Consumer Affairs*, 12, 276-291.
- 59) Moschis, G. P.(1987). *Consumer socialization: A life-cycle perspective*. Lexington Books.
- 60) Newcomb, A.F., & Bagwell, C. (1995). Children's friendship relation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7, 306-347.
- 61) Patterson, G. R., Capalen, D., & Bank, L. (1990). An early starter model for predicting delinquency. In D. Pepler & K. H. Rubin (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pp.139-168). Hillsdale, NJ: Erlbaum.
- 62) Petersen, A.C., Sarigiani, P.A., & Kennedy, R.E. (1991). Adolescent depression: Why more girl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 247-271.
- 63) Raviv, A.(1996). Adolescent idolization of pop singers: Causes, expression, and relia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5, 631-650.
- 64) Richins, M. L.(1990). Measuring material values: A preliminary report of scale development.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7, 169-175.
- 65) Rorengren, K. E., & Windahl, S. (1989). Media matter: TV use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Dervin, B.(Ed),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cience*. (pp. 215-255). New Jersey: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Norwood.
- 66) Sampson, R.J., & Laub, J.H.(1994). Urban poverty and the family context of delinquency: A new look at structure and process in a classic study. *Child Development*, 65, 523-540.
- 67) Sharp, S., & Cowie, H.(1998). *Counseling and supporting children in distress*. Sage Publications.
- 68) Sharabany, R., Gershoni, R., & Hofman, J.E. (1981). Girlfriend, boyfriend: Age and sex differences in intimate relation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17, 800-808.
- 69) Sim, H. O., Vuchinich, S. (1996). The declining effects of family stressors on antisocial behavior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Journal of Family Issues*, 17, 3, 408-427.
- 70) Simon, R.L., Johnson, C., & Conger, R.D.(1994). Harsh corporal punishment versus quality of parental involvement as an explanation of adolescent mal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591-607.
- 71) Strasburger, V. C. (1995). Adolescents and the media: Medical and psychological impact. Kazdin, A. E., (Ed) *Developmental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iatry Series*. London New Delhi: SAGE publications.
- 72) Strommen, M.P., & Strommen, I.(1985). *Five cries of parents*. Sanfrancisco: Harper & Row.
- 73) Vener, A. M., & Hohter, C. R.(1965). Adolescent orientation to clothing. In M. E, Ronch & J. B. Eicher(Eds.).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John Wiley & Sons.